

研究論文

東度の 욕망과 東京이라는 장소(Topos)
- 1905~1920년대 초반 동경 유학생의 기록을 중심으로 -

우 미 영*

I. 서론	IV. 맺음말: 심상지리와 장소 인식을 통
II. 東渡의 꿈, 동경 유학생의 욕망과 입신출	해 본 두 개의 동경
세주의	<참고문헌>
III. 제국의 문화 체험에 나타난 동경의 장소	<국문요약>
적 의미와 주체	

I. 서론

조선 말기의 해외 유학생 파견은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영선사를 통한 청국 유학을 제외하면 그 대상국은 모두 일본이었다.¹⁾ 일본을 향한 留學의 물결은 당대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적 장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적 근대화를 선취한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신사 유람단의 朝士 수행원이었다가 유학생으로 남게 된 유길준, 윤치호, 김량한 등을 시작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일본은 지식의 요람³⁾이자 근대

* 한양대학교 강사, 현대소설 전공(banyawoo@hanmail.net).

1)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문음사, 2001), 26쪽.

2) 이는 조선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또한 “같은 유교 문화,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일찍이 근대화에 나선 일본을 모범으로 삼는 편이 속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수의 일본인을 중국 학당의 교원으로 초빙하였다. 上垣外憲(저)김성환(역), 『일본유학과 혁명운동』(진흥문화사, 1983), 57쪽.

문화 체험의 주된 장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도시가 東京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경은 개화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신 문화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 이 글에서 근대 한국의 역사적 장소로서 동경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개항 전까지 한일 간 문화 교류는 정부에서 파견한 공식 사신인 통신사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개항 이후에는 양국의 민간인이 교류의 주축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민간인의 조선 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반면 조선인의 일본 진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⁴⁾ 조선에서 개항 직후 근대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자들은 주로 외교 사절단의 일원들이었으며, 민간인의 경우는 유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전자의 일본 견문록이나 사행록에서는 근대적 문명을 접하는 조선 말기 유학자들의 충격과 그로 인한 정신적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⁵⁾ 개화기 유학생들 또한 성리학적 의식과 근대화된 문명 의식을 공유하면서 주로 전자의 입장에서 후자를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이들 유학자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⁶⁾ 그러나 1905년 이후 유학생들의 태도는 使行團이나 개화기 유학 세대와는 변별된다. 을사늑약, 사비유학생의 급증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유학생의 위치와 의식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⁷⁾ 뿐만 아니라 이 시기부터 일본 유학을 통한 고등 인력이 본격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1920년대 초까지 이들은 일본 체험의 주된 층을 형성하다가 1920년대에 이르면 그 비중은 현격히 줄어든다. 일반인의 일본 체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1905년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고, 유학생들의 일본, 특히 동경 체험을 살펴보고

3) ‘요람’이라는 표현은 “내 개인으로 본다면 東京은 나의 문학적 수양의 요람지인 것이다”라고 박영희가 동경을 회고하면서 쓴 말이다. 박영희, 『京雜感』, 《삼천리》, 1938년 10월호, 135쪽.

4)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2004), 113쪽.

5) 장인성, 「토포스와 아이덴티티: 개국기 한일 지식인의 국제정치적 사유」, 『국제정치논총』, 37(1998); 황호덕, 「로쿠메이칸(鹿鳴館)의 유학자: 박대양의 『동사만록』과 메이지 일본의 표상 내셔널리즘」, 『상허학보』, 11(2003); 황호덕, 「타자로의 향해들, 「사이」에서 창안된 네이션: 개항기의 견문록과 간문화적 자기 재현」, 『한국사상과 문화』, 34(2006) 등.

6) 김윤식은 1905년 8월경 처음 동경 유학 생활을 시작한 이광수와 개화기 세대의 유학생인 김기수, 최린, 최남선의 의식을 이러한 관점에서 변별한 바 있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한길사, 1986), 133~154쪽.

7) 김성학, 앞의 책(2001), 35~37쪽.

자 한다.⁸⁾ 주 텍스트는 이들이 남긴 동경 기행문 및 동경 체험 기록들이다.

渡日 조선 유학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⁹⁾ 역사적 사실과 제도의 차원에서 논의된 이들의 글을 통해서도 유학생의 의식과 내면세계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의는 문학연구에서, 특히 일본 유학을 경험한 근대 작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하였다.¹⁰⁾ 동경이라는 공간의 의미 또한 이들 작가와의 관계 속에서 주로 논의되었다.¹¹⁾ 최근 관심이 일반 유학생의 산문에까지 확대되면서 이들의 사적 체험과 근대 제도적 공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다.¹²⁾ 본 논문 또한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체험과 인식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단, 여기에서는 실제의 동경 체험뿐만 아니라 조선에서의 동경에 대한 상상까지 포괄하였다. 동경으로 향하는 조선 유학생들의 내적 욕망과 실제의 동경 체험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당대 동경이라는 공간의 자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먼저 조선의 유학생들이 왜 동경으로 향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풀어보고, 나아가 일본을 향하면서 품었던 이들의 희망, 괴로움과 좌절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이 실제 동경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를 유학생들의 주체 형성 방식과 연관 지어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유학생의 일상 체험에 스며든 문화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동경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동경을 장소(Topos)의 의미에서 접근하였다. 장소 곧 토포스¹³⁾란 공간이나 배경보다 좀 더 구

8) 박기환에 의하면 1910년대 당시 유학생의 실태를 살펴보면, 일본 유학생의 85%가 동경에 유학했고, 사비유학생은 90% 이상이었다. 박기환, 『近代日韓文化交流史研究: 韓國人の日本留學』, 大阪大學 박사학위논문(1998), 32~34쪽.

9) 渡日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광린의 연구를 비롯하여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논의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글들에 한해서만 각주에서 밝히기로 한다.

10) 김윤식, 앞의 책(1986), 147~225쪽.

11) 노영희, 「이상문학과 동경」, 『비교문학』, 16(1991); 사노마사토, 「이상의 동경 체험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7(1999).

12)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 『우리말글』, 32(2004).

13) 토포스는 원래 ‘장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공동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변증술적 탐구에서 공통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규칙 내지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저)/김재홍(역), 『변증론』(까치글방, 1998), 59쪽.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적 정의에서 그것은 “둘러싸고 있는 것과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거기서

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먼저 주체가 신체적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장소 인식이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근대 동아시아 제국의 도시 공간으로서 동경의 문화정치적 의미와 유학생의 상호 작용 관계를 물리적인 반응으로서의 구체적인 장소 체험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과 동경, 동경과 유학생에 대한 이런 식의 관계 파악은 식민지 조선에서 가졌던 동경에 대한 꿈과 욕망이 실제의 동경에서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용되는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유학생들이 동경이라는 장소의 문화 정치적 위력에 어떻게 포섭되거나 저항하는가 또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東渡의 꿈, 동경 유학생의 욕망과 입신출세주의

《대한학회월보》에 실린 「留學의 原因」¹⁵⁾에 의하면 유학은 국가적 위기감에서 촉발된 것이다. 유학생들은 “파도가 덮어 큰 집이 막 무너지려하는,” “백척간두 끝에 한 발짝 나갈 여지가 없고 고목이 쓰러짐에 새싹이 날 가망이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7년 긴 병”을 고치기 위해 “3년 묵은 약쑥”을 구하는 심정으로 유학을 떠난다. 여기에서 ‘약쑥’은 곧 신학문이다. 이들에게 학문은 “身家만 保維”할 뿐 아니라 “故土의 模範을 作호야 能히 十人百人으로 호야곰 頑蒙을 覺케호며 迷魂을 返케호”¹⁶⁾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유학과 신학문을 향한 열망은 모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유학의 길은 개인적

접촉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물체의 경계”를 뜻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토포스는 포섭하는 것과 포섭되는 것이 접촉하는 경계로서 이 둘을 관계 짓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토포스의 개념은 주로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인성, 앞의 논문(1998), 6-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 용어는 언어학에서는 단순한 장소 개념이 아니라 ‘말과 관계된 밀자리, 즉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데 쓰이는 말들의 터전’[양태중, 「말터(Topos) 나누기」, 『언어와 언어교육』, 11(1996), 85쪽]으로, 문학 작품의 수사학에서는 ‘후속 텍스트들의 창작을 위한 원천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한 텍스트에서의 관습화된 표현이나 구절’을 뜻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문학, 언어학 및 수사학에서의 토포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현수, 「김소월 시의 보편성과 토포스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7(1999), 52-53쪽을 참고하였다.

14) 황호덕, 「경성지리지, 이중언어의 장소론」, 『대동문화연구』, 51(2005), 135쪽.

15) 權寧求, 「留學의 原因」, 《대한학회월보》, 1908년 6월호, 9쪽.

16) 「내지유학생에게」, 《매일신보》, 1913년 8월 21일자.

으로는 “잘 먹고 잘 입는 뜻”을 “저버리고” 떠나는 길이다.¹⁷⁾ 이렇듯 이 당시 유학생들은 떠날 때부터 스스로에게 국력 보강의 소명 의식을 강하게 부여한다. 유학을 가셔도 일 개인으로서보다는 조선 유학생의 모임인 대한회의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자 한다. 즉, “백 배로 일해야 하는 굳세고 씩씩한 대한회”¹⁸⁾임을 강조하면서 신문명 국가 건설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이렇듯 1900년대 후반 일본 유학은 구국을 위한 도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글은 유학의 이유인 신학문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입신출세주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吾人は何故로多數의時間과高額의金錢을費用하면서小,中,大學의教育을受ける가.其中에는全히優遊度樂하기를目的하는者도有할터히는大體上多數는學問으로써職業을得는逕途이라고爲思할지니分明히말하자면人은將來社會에立하여야衣食의資를得이라고今日學問을從事한다함이니올토다.斯言이어.文明各國에서는學問잇는人터림比較的高等地位를占有하는者가無호고로優勝劣敗競爭場에立코자하는者學問을專修함이니今日 더專門教育과如한거슨分明히人에게職業을教授함이라云하여도關係치 아니할지라.此로써普通教育에至하기까지立身出世의最高한手段이라고思함도別數업는順序인는世上의父兄되신이도其子弟에게學을修케함에當하여는무슨鐵道인는會社에資本을너는것긋치너여學資를給與하고學校便으로見출지라도最先卒業生에立身の途를與한者는必也繁榮을得한다함이니此는分明히我國現今學問界의趨勢이라.然則學問의目的이果然此處에在호나.余는學問과立身出世의間에密接한關係가有호다함은勿論承認할지언당此가學問動機의第一位라고는思惟치 못호노니¹⁹⁾

研究生이라는 필명의 논자는 학문을 “직업 혹은 입신출세의 한 수단으로 생각 하는 국민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학문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달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서 입신출세나 사회를 이롭게 하는

17) 김태근, 「漢城仲春再渡東京」, 《태극학보》, 1907년 4월호, 39~40쪽.

18) 玉口生, 「東渡雜詠」, 《대한학회월보》, 1908년 5월호, 43쪽.

19) 研究生, 「학문의 목적」, 《태극학보》, 1908년 1월호, 12~13쪽.

것은 그에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당시 학문에 대한 인식 전반을 비판하고 있다. 《태극학보》가 동경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잡지임을 감안할 때, 이 글은 구체적으로 학문을 입신출세주의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유학생들의 학문관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일 조선 유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에서의 학문 목적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윤주의 「東京 一日의 生活」은 이러한 분위기가 일본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저녁을 먹고 소풍 겸 산책 삼아 우에노(上野) 공원의 호수인 시노바즈 이케(不忍池) 주변을 걷다가 건너편 공원에서 “男兒立志出鄉關 學若不成死不還”²⁰라는 갯쇼(月性)의 시구를 읊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학업의 성취를 다짐하는 이 노랫소리는 명치 유신으로부터 비롯된 일본의 입신출세주의적 학문관을 반영한다. 근대적 교육법제를 포고한 명치 5년의 ‘學制被仰出書’에서는 ‘입신을 위한 재산과 자본’으로서 학문을 강조하는 동시에 표방하였다. 메이지 유신을 시작으로 신분 사회의 규제가 풀림으로써 학문을 통한 실력의 양성은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력의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²¹

다케우치 요(竹內 洋)에 따르면 일본의 입신출세주의를 강조하는 서사는 “몰락이나 낙오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심층의식”²²을 강조함으로써 대중 독자들에게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의 효과를 낳고 있다. 즉 이들의 입신출세주의 서사는 입신양명 후에 누릴 행복한 삶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낙오와 몰락의 서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위기감을 유발한다.

조선 유학생들의 글에서도 낙오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양국의 입신출세의 담론에는 낙오 또는 몰락의 서사가 동일하게 그 기저에 깔려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낙오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반면 조선 유

20) 李潤柱, 「東京一日의 生活」, 《태극학보》, 1906년 8월호, 46쪽. 이 시 구절은 유학생들의 글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로 공부를 통해 성공을 이루리라는 굳은 다짐의 의미로 전용되었다.

21) 竹內 洋, 『立身出世主義: 近代日本のロマンと慾望』(京都: 世界思想社, 2005), 11~17쪽.

22) 당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주간지였던 소년 투고 작문집 《영재신지》에 게재된 명치 10년부터 12년까지 작문 1,550편 중 240편 즉 전체의 15.5%가 입신출세에 관한 작문이었다고 한다. 竹內 洋, 위의 책, 17쪽.

학생들은 현재 자신들이 이미 낙오되었다는 위기감과 그로 인한 조급함에 시달린다.

《대한학회월보》에 실린 「留學의 原因」에서의 “7년 묵은 긴 병”이라는 표현에는 세계 체제의 변화에 조선이 이미 늦었다는 낙오감이 진하게 깔려있다. 1908년도의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초반에도 여전하다.²³⁾ 1922년 민성기는 이러한 낙오감을 “見兎而顧犬未爲晩也 亡羊而補牢未爲遲也”²⁴⁾라고 표현하였다. 토끼를 발견하고서야 개를 찾거나 양을 잃고서야 외양간을 고쳐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로의 기저에는 晩時之嘆의 낙오감이 깔려있다. 이 때의 낙오감은 조선이라는 공간과 연관된다. 그는 고향 또는 조선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낙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平生에 足跡이란 百里 박글나가 보지 못하얏스며 日常의 交際란 오직 家中之人에 不過”한 우물 안 개구리는 단순히 견문이 좁은 자가 아니라 ‘낙오자’이며 ‘타락자’이다.²⁵⁾ 그에게 조선이라는 공간은 결핍의 공간이며, 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조선의 바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 결과 그는 탈출의 방향을 당시 합법적으로 허용된 해외 공간이었던 일본에서 찾게 된다. 이처럼 그에게 유학은 조선이라는 낙오의 공간을 탈출하여 선진 문명의 공간에서 개인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

「동경으로 가면서」에서 일본에서 배울 신학문은 “광명의 학”이다. 이 글의 필자는 신문화가 어둡고 목마른 현 조선인에게 등불과 물이 되어줄 것을 확신한다. 이를 깨달은 그는 “飢者가 食을 得흔 듯 渴者가 飲을 得한 듯 아모 忌憚업시 다맛 目的地로 向”한다. 뒤늦은 깨달음으로 인해 그의 허기와 갈증은 더욱 심해지며, 그의 마음은 조급하다. “世界의 新思潮는 날노 우리의게 急迫하며 吾人의 生命인 新文化는 날노 우리의 頭腦를 開拓하라하는도다. 暗黑에서 光明으로 威力에서 道義로 社會改造하며 우리의 幸福을 增進코즈 우리의게 自覺을 促하”기 때문이다. 조

23) 1910년대에는 유학생들의 東渡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는 1910년 조선이 일본의 본격적인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으로의 유학 행렬은 주춤하게 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말 증가일로에 있던 일본 유학생의 수는 1908년에서 1909년경에는 800에서 880명에 이른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전반기까지 500에서 600명 선을 유지하는 침체를 보이다가 1918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7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미상, 「일본유학사」, 《학지광》, 1915년 7월호, 12~13쪽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 박찬승, 「1910년대 도일유학과 유학생행」, 『호서사학』, 24(2003), 115~120쪽 참고

24) 민성기, 「동경으로 가면서」, 《매일신보》, 1922년 5월 9일자.

25) 민성기, 「동경으로 향하면서(1)」, 《매일신보》, 1922년 1월 23일자.

선과 자신의 처지를 암흑의 공간,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자로 인식함으로써 그는 낙오와 타락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는 “墨守하던 구습을 한 주먹에 타파하고 남이 한 가지를 학하거든 우리는 열 가지를 學하고 남이 열 가지를 발명하거든 우리는 백가지를 발명하여낼 적극적 분발심”²⁶⁾으로 “문명의 낙오자,” “시대의 낙오자”를 면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학을 가고자 결심한 조선 청년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이유는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損 孝之始也,” “非先王之法 服不敢服”이라는 옛 가르침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한편에 있기 때문이다.²⁷⁾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신문명을 향한 그의 꿈이 내면에서 충돌하면서 그는 자신이 왜 타국에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듭 자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애쓴다. 즉, 단발에 양복을 입고 타국으로 떠나는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묻고 또 묻는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자답한다. 그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기대는 것은 “사람은 시대를 알아야”하고 “시대”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서 ‘시대’를 따른다 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보다 2년 앞서 발표된 김기수의 글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또한 「동경으로 향하면서」의 필자와 마찬가지로 늙은 부모와 정든 고국산천을 두고 떠나는 섭섭함,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무엇을 求하라 急行車를 타고 그리 忽急히 가는가 學問을 어더 무엇을 亨는가 社會를 爲흡인가 一身一家를 위흡인가”라는 자문을 통해 유학의 명분을 찾고자 하였다.

그에게 답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최남선의 『시문독본』이다. 『時文讀本』은 유학생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주고 그의 유학을 정당화시켜주는 합리적인 논리를 제공한다.²⁸⁾ 『시문독본』 가운데에서 그가 읽은 것은 「공부의 바다」와 「견딜성내기」 부분이다.²⁹⁾ 「공부의 바다」는 “공부의 바다는 입을 멀고나, 나가고 나가고도 숫보겠네, 갈수록 아득함 怯하지마라”로 시작하는 전체 4연으로 된 시다. 공부의 길은 멀지만 겁먹지 말고 나아갈 것이며, 모험을 “흐뭇한 試驗”으로 여기고 기꺼운 마음으로

26) 민성기, 「동경을 향하면서(2)」, 《매일신보》, 1922년 1월 24일자.

27) 위의 글.

28) 김기수, 「동경여행기 일편을 이궁석 군에게」, 《조선일보》, 1920년 6월 29일자.

29) 최남선의 『시문독본』은 1916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1922년 신문관 간행본을 참고하였다.

로 정진하라는 내용이다. 「견딜성내기」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참고 이겨내면 전쟁터나 다름없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 예로 남북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쟁에 임하였음에도 두려움을 참고 용기를 발휘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둔 그랜트라는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험을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인내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들 글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또 길러주는 것은 자기수양의 마음과 방법이다. 이러한 내용의 글들을 읽으며 그는 유학의 길에서 생기는 불안감을 달랬다.

다음으로 그가 새기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다.

넉가平生에 榮貴한 것을 지나보지 못하얏으며 日常에 快樂한 것을 아지 못하고 먹는 것을 節用하며 입는 것을 省費하여 쓰고저 하는 일과 하고저 하는 것을 敢히 疎忽히 處事치 못하고 戰戰兢兢히 놀을 보늬는 것은 오즉 子息의 將來를 爲하며 家門의 幸福을 긋게 하고자 하는 바이며 夢를 樂으로 알며 ●를 興으로 녀이고 甚至於 남의 ●●의 厄도 많이 當하였으며 讒謗의 怨도 많이 當하였으되 모도 다 不顧하고 다만 流水光陰이 어서어서 수이 가서 이 子息의 豹變의 美와 蛾述(術)의 功을 成하여 一門의 榮光이 되고 一身의 幸福이 만홀 實格이 되게 하기를...³⁰⁾

유학 가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말은 유학이 가문의 영광과 개인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매일신보》에 연재된 「동경으로 향하면서」는 『시문독본』과 이러한 어머니의 말을 병치함으로써 당대 유학생들에게 수양론과 입신출세주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보여준다.³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유학생들의 東京을 향한 꿈에는 신학문에 대한 동경과 입신출세주의에 대한 기대가 함께 얽혀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그들의 생각이다. 춘과 박달성은 동경 유학의 이유를 “남만 못하고는 조선은 그만두고 일신을 장차 안보키 難한지라” 동경 유학을 떠나게 되었노라 적으면서 “우리로서 누가 남만큼 알아야 되겠다함을 말지 아니하

30) 민성기의 「동경으로 향하면서(3)」, 《매일신보》, 1922년 1월 25일자.

31) 수양론과 입신출세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소영현,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교양론·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 18(2006)의 206~21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며 남만큼 알고야 되겠다는 우리로서 누가 배우지 아니하려 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려 할가. 이것은 現下의 우리 조선 청년된 者의 공통한 주의이며 또 각성일 것이다”³²⁾라고 하였다. 그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남’은 경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모방의 대상 또는 기준이다. 즉,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라는 말은 ‘남만큼은 되어야겠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학문의 기준은 국가적 경계의 외부에 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학문을 통한 입신출세의 욕망이 약육강식의 사회적 경쟁을 유발했고 이것은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일본을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것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학문의 권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정치적 목적이다.³³⁾ 입신출세 서사의 저변에 깔린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 국가 만들기에서의 준비론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 학문은 일본이라는 정체성 형성을 위해 국가 내부적으로 수렴되었다. 일본에서 학문이 수행했던 전략을 고려할 때, 유학생들이 조선에서 품었던 東京에의 꿈은 그러한 전략에 포섭될 수 있는 위험한 도정이 된다. 물론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일원화할 수는 없다. 이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유학생 주체와 식민 제국의 수도인 동경의 상호작용 자체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III. 제국의 문화 체험에 나타난 동경의 장소적 의미와 주체

1. 국민 통합 공간으로서의 동경과 非國民으로서의 유학생

1908년 玉口生은 「東渡雜詩」³⁴⁾에서 “밤 되어 하관항에 정박을 하고, 광도현에

32) 朴春坡, 「玄海의 西로 玄海의 東에(日記中)」, 《개벽》, 1921년 2월호, 65쪽.

33)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에 따르면 입신출세주의와 이로 인해 촉발된 자유경쟁 의식이 심층에서 작용하는 바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에 시원을 둔 일본의 신학문에 대한 열정은 궁극적으로 일본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이로부터 일본이 서구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오구마 에이지(저)/한철호(역), 『일본이라는 나라?』 (책과함께, 2006), 11~31쪽.

34) 玉口生, 앞의 글(1908).

서 아침 해 바라보았지. 해군과 육군을 양성하느라 산 자락 바닷가에 길을 내었고, 산은 푸르게 숲이 우거졌으니 국방의 위력을 알 수 있었네”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가 일본에 도착하면서 처음으로 본 것은 일본의 군대와 울창한 삼림이다. 그것은 튼튼한 국력의 상징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기울어가는 조선을 떠올리며 그는 “조국을 크게 세우고 다시금 억만세를 외쳐보리라”는 말로 긴 시를 마무리 짓는다. 이처럼 이 시기 유학생들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가장 먼저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계를 예민하게 감지한다.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삼림마저도 그 나라의 국력으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의미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유학생의 의식에 조선이라는 관념을 형성시키는데, 이 과정은 곧 이 시기 유학생들의 민족적 자의식이 형성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1900년대 후반의 유학생들이 일상 체험을 통해 동경을 인식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이 시기 이들의 생활공간이었던 동경은 메이지 정부에 의해 제국의 수도로 계획화된 정치적 공간이었다. 동경은 1888년부터 시행된 시구개정(urban planning) 사업에 의해 근대적인 도시로 개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근대 도시로의 개조는 1919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다. 1888년부터 1919년까지의 시구개정사업은 도시 공간 자체의 내적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목적—국민국가의 중앙집권적 공간으로의 재구성—에 의해 수행되었다.³⁵⁾

이 시기 유학생들이 동경 생활을 기술한 글에는 ‘공원’이 자주 언급된다. 메이지 시기 동경의 공원은 국민국가 형성에 동원된 중요한 문화 정치적 공간 중의 하나이다. 오노 료헤이(小野良平)에 따르면 일본의 공원은 도시계획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 건설되었다.³⁶⁾ 하지만 도시 계획의 차원에서는 히비야(日比谷) 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이 계획은 계획의 차원에서 머물고 말았다. 또 다른 차원에서 공원은 기념식전, 박람회, 전승 개선식과 같은 국가적 축제나 행사를 위해 더욱 필요한 장소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원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기에 국민의 문화통합, 상징 통합을 통해 국민을 정신적으로 통합하는 의례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치로서 계획되고 편성된 공간이었다. 시

35) 김백영, 「왕조 수도로부터 식민도시로: 경성과 도쿄의 시구 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학보』, 112(2003), 78~84쪽.

36) 小野良平, 『公園の誕生』(京都: 吉川弘文館, 2003), 5~6쪽.

구개정사업기의 도시 계획 또한 근대적 문명 도시의 계획보다는 국가의 경제 통합 및 국민통합의 목적이 강했음을 상기할 때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성립된 공원 역시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의 하나였다.

동경의 유학생들에게 공원은 하나의 휴식 공간이었다. 이 시기 공원의 전략을 감안할 때 공원에서 이루어진 유학생들의 휴식은 제국의 문화 정치적 자장 속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그 문화 정치적 의도인 ‘국민으로 묶기’가 공원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정부가 제공한 공공의 장소인 공원은 신분제도로 인해 분절되었던 도시의 공간을 일원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분절되었던 국민들까지도 하나의 공간 속에서 통합시킨다.³⁷⁾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나 국가적인 의례 등의 행사 또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포섭한다. 그렇다면 저녁 식사 후 또는 친구들과 휴일에 공원을 찾았던 이 시기 동경 유학생들은 동경의 공원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춘몽 김원극은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아사쿠사(遊淺草) 公園과 히비아(日比谷) 公園에 대해 적고 있다.³⁸⁾ 그는 공원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한 종류도 尋常한 유희가 絶無하고 無非國民으로 하여금 진화하는 具”라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그는 인민을 교육하고 인민과 화락하면서 국민을 형성하려는 공원의 전략을 정확히 읽어낸다.³⁹⁾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타자의 전략을 통해 그가 발견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민족이며 그의 내면에 형성되는 것은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자의식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일본의 공원을 거닐면서 그것의 문화 정치적 자장에 포섭되지 않고 그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찰하는 비판적 산책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 시기 공원이 갖는 국민통합적 전략은 신분과 계급의 무화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신분제도에 의해 분열되고 단절되었던 자들이 동등하게 제공되는 공원의 장소를 통해 일본인이라는 국민으로 일원화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유학생이 이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동경에서 그의 정체성이 계급보다는 민족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김원극이 일본의 국민과 달리 공원의 전략에 포섭될 수 없는

37) 小野良平, 위의 책, 13쪽.

38) 송남 춘몽, 『遊淺草公園記』, 《태극학보》, 1908년 7월호; 춘몽자, 『遊日比谷公園』, 《태극학보》, 1908년 7월호.

39) 이에 대해서는 김진량의 앞의 논문(2004), 258~259쪽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것은 이러한 입지점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공원이 계급적 차별성을 무화시키는 공간으로 해석되는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발견된다.⁴⁰⁾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그것은 공원의 특성으로만 언급될 뿐 유학생들의 정체성은 민족적 경계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문화 정치적 전략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들이 소비대중이 되었을 때이며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이르러야 발견된다.

일본이라는 타자의 공간에서 예민하게 작동되는 유학생의 민족적 자의식은 공원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수욕장에서도 그들은 “국가의 인민을 보호함”에 경탄하며⁴¹⁾ 우에노 공원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구경하면서도 “고향 땅 생각하니 뜨거운 맘이 일어, 몇 잔 술 통음하며 발길을 돌”린다.⁴²⁾ 이런 점에서 동경은 유학생들에게 민족적 자기 각성의 공간이요 세계적 좌표 속에서 조선의 현실을 가늠하게 하는 공간이다. 현상윤과 문인평에게는 ‘학교’가 이러한 자각을 제공한 공간이다. 현상윤은 학교에서 조선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자각하게 되었노라고 적은 바 있다.

나는 學校에 들어와, 몇 해 동안 學問의 研鑽을 始作한 後로는, 朝鮮社會에 對한 關係가 몹시 緊切하고 密接한 것을 感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學校에서 先生의게 한마디를 어더들어도, 그것이 니어 朝鮮이란 實地에 應用的 解釋을 要하게 되고, 한마디만 변을 울너도 곧 그것을 우리 社會에 빚쳐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學校 漆板 밋해서 先生의 講義하는 말은 어디로 지내가는지 알 수 업시 나 혼자 우둑하니 안자서 딴 세계, 딴 배포를 하는 것이 하로면 멧 번식, 멧 時間식이였다. … 좌우간 나는 조선사회를 생각할 쎄에는, 무엇이 타는 듯하고 불니는듯하야, 아모리 누르랴도 누를 수 업는 무엇이 생가슴에 차는듯 하고, 갑갑한 마음과 보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感歎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내의 性格이 이러케 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의 그동안 學校에서 배훈 知識이 이러케 함임을 스스로 認識하였다.⁴³⁾

40) 이러한 관점은 이 시기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김춘강, 「동경화신」, 《조선일보》, 1923년 4월 18일자; 吼人, 「日比谷公園」, 《현대평론》, 1928년 7월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41) 白岳生, 「海水浴의 一日」, 《태극학보》, 1906년 9월호, 55쪽.

42) 이회철, 「夜觀上野博覽會」, 《태극학보》, 1907년 5월호, 54쪽.

43) 현상윤, 「졸업증서를 받는 날에(일기에서)」, 《학지광》, 1919년 1월호, 73쪽.

학교는 가장 침예한 국민 교육의 현장이다. 현상윤은 학교의 수업 시간에 조선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고, 선생의 말 사이에서 부단히 조선을 떠올린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의 국민화 현장 속의 비국민이다. 이러한 위치에서 그는 새롭게 조선인으로로서의 자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문일평이 조선을 발견하는 방식도 이렇하다.⁴⁴⁾ 지금까지 살핀 것은 유학지인 일본의 국민 통합 전략을 직감하고 이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유학생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 거리감은 유학생들을 조선의 국민 또는 민족으로 정체화하는데, 이는 일본의 국민화 전략이 그들에게 역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 기준으로서의 동경, 중심/주변의 이중성과 유학생의 위치

지금까지 유학생들이 제국의 문화 장치가 편재하는 동경이라는 국민의 공간에서 어떻게 비국민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그들은 동경에서 말 그대로 학생의 위치에 있다. 철저한 학생의 자세를 취하면서 동경의 모든 것을 배워서 자기화하고자 한다. 이 때 동경은 그들에게 사유의 기준 또는 중심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동경에 대한 유학생들의 태도와 자기/타자에 대한 사유의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예는 이 시대 유학생들의 ‘지피지기’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日本雜感 并序」⁴⁵⁾는 오늘날 일본의 문명을 이룬 원인을 그들의 역사지리, 인정풍속, 정교문물, 사농공상, 육해군의 戰備, 사회의 상태 등에 대한 고금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유는 이를 통해 “형세를 미루어 때를 살피고, 사례에 의거하여 고증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우리의 사업을 개발하고 우리의 권력을 신장시킬 방법을 생각하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똑같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그 자체에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소개의 글은 이 시기 흔히 볼 수 있다. 동경 시내의 명소 15군데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는 「江戸十五景」 또한 이에 속한다. 한 예를 들면, 15경 가운데 하

44) 장인성, 「문일평의 ‘문명’과 조선아」, 서연호(외), 『한국 근대 지식인의 민족적 자아형성』(소화, 2004), 126~127쪽 참고.

45) 姜莖, 「日本雜感 并序」, 《대한학회월보》, 1908년 11월호, 43~45쪽.

나인 우에노 공원에 대해서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동상에 대한 감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시타야구 우에노 공원에는 사이고(西郷)의 동상이 천년을 서 있구나, 덕천의 옛 자취는 지금 어디 있는가. 강호성 안에는 물만 절로 흐르네”⁴⁶⁾라고 표현하면서 옛 동경, 즉 강호에 대한 회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는 정한론자였던 사이고 다카모리에 대한 조선인으로서의 어떠한 역사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동경을 알아야한다는 목적에 충실할 뿐이다.

이러한 동경에 대한 지적 욕구는 문명에 대한 자기 계몽 의지의 발현이다. 동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는 근대적 문명화에 뒤진 조선인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유학생의 사명감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학생의 동경 소개에는 자기 각성과 타자 계몽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중적인 계몽의 의지와 태도는 동경 또는 일본과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유학생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귀국 여정을 적은 한 유학생의 글은 이러한 그의 위치를 잘 말해준다. 그는 “동경부터 부산까지 조선 두루막이 처치하기에 은근히 힘이 드든 것이 부산 기차 중으로서는 배를 내밀고 앉게 되었었나이다”⁴⁷⁾라고 적고 있다. 동경에서 부산까지 두루마기를 처치하기 힘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부산의 기차에서부터는 배를 내밀고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일본에서는 주변인으로, 조선에 들어서면 중심인으로 여기는 그의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일본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변인 동시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세계의 체험과 주변인 동시에 중심이라는 이중적 위치는 비교의 사유를 낳는다. 이 시기 유학생들의 비교 의식은 강박증에 가깝다.

學校에 처음 入學하여 어느 날 學校에 가난 路中에 한 老車夫가 靑年紳士를 토크고 이마에 슬인 땀을 이리 씻고 저리 씻고 달여오더니 그 紳士난 어느 大家로 들어가고 그 老車夫난 門前에 그뒤로 안저서 準備하였든 新聞을 피어들고 熱心히 歐洲戰報와 其他 社會上 千差萬別한 記事를 滋味있게 보난 貌樣 닌의 가난 발을 멈추고 한번 보게 하난도다. 余의 머리에 할쌀갓치 쏘인 感想 電

46) 이승근, 「江戶十五景」, 《태극학보》, 1907년 4월호, 38~39쪽.

47) 백웅, 「모학교교장에게」, 《학지광》, 1918년 3월호, 75~76쪽.

氣갓치 半島社會가 눈앞해 보이난도다. 이—諸君이여 우리나라에 新聞을 보난 사람이 幾人이며 또 볼만한 眼目을 가진 사람은 幾人일가 惑 眼目을 가진 사람은 보기 싫어 안이 보고 眼目을 갖지지 못한 사람은 몰라서 보지 못하니 識見上 어느 範圍 內에서난 他邦의 車夫 社會에 不及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로다. 이에 當하야 朝鮮靑年이 엇지 한면 慨歎感覺함이 업스리오.⁴⁸⁾

학교에 가던 중 필자는 차부, 즉 인력거꾼이 신문을 읽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를 본 순간 그는 화살같이 또는 전기같이 조선을 떠올린다. 이렇듯 동경은 유학생들에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즉, 거울로서의 동경은 자아의 이상이 되어 현실의 자아와 부단한 비교의 심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비교 사유는 타자를 통해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때의 자신은 개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집단적 자기이다. 여기에서 인력거꾼은 인력거꾼 자체가 아니라 일본인이다. 필자는 인력거꾼을 일본인이라는 추상적 집합체로 비약시킴으로써 신문을 읽는 그의 행동과 조선인이라는 막연한 집합체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한다. 특히, 이러한 비교의 사유는 타자가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물리적으로 강력한 것이라고 지각할 때 발생한다.⁴⁹⁾

《매일신보》에 발표된 이광수의 「동경잡신」⁵⁰⁾은 이러한 비교 사유의 의미망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먼저 그것은 동경으로 표현되는 중심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 이광수가 보기에 이 시대 유학생의 첫 번째 목적은 “粉骨碎身を 하더라도 世界 最高 文明國의 最高 文明人과 同一한 程度에 追及하려 함이니, 卽 自身 最高 文明人이 되려 함”이다. 이광수가 동경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조선에 있는 “才能과 金錢을 兼備한 有福靑年 諸君”들도 “奮然히 志를 決하고 最高 學府(部)에 學하여 써 最高 人物되기를 힘쓸” 것을 강권한다. 그에게 최고학부는 일본의 제국대학이다. 이 곳을 나와야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중심을 향한 열망은 곧 최고에의 욕망이기도 하다. 근대 문명을 실현한 것으로 인식되는 동경, 문명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일본의

48) 박승수, 「東渡之感想」, 《학지광》, 1917년 7월호, 14쪽.

49) 장인성, 앞의 논문(1998), 7쪽.

50) 이광수, 「동경잡신」, 『이광수전집』 17(삼중당, 1962), 475-514쪽. 이 글은 《매일신보》 1916년 9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연재되었다. 춘원은 이 글을 쓴 2차 유학기에 이르러서야 동경을 주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김윤식은 지적하였다. 김윤식, 앞의 책(1986), 148쪽.

대학은 그에게 문명을 통해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매개물인 것이다.

그의 목표는 동경에서의 공부를 통해 스스로 문명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그의 눈에 동경의 풍경 가운데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 또한 문명의 풍경이다. 그에게 동경은 ‘窓忙’의 도시이다. 바쁨은 근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볼 때 게으름과 대비되는 문명인의 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문명의 도시 동경에서 동경인들의 바쁜 생활상을 특징적으로 꼽아 예찬한다. 이 때 예로 드는 것이 동경의 공원 풍경이다.

夏日 黃昏이나 日曜日 其他 休日に 東京 近郊나, 市内 公員이나, 演劇場, 活動寫眞館 等處에 가장 閑暇하게 逍遙 觀覽하는 士女를 보나니, 此는 京城에서도 塔洞公園이나, 三清洞, 淸涼里 等處에서 可見할 景況이라. 然이나 此와 彼에는 相異가 有하니, 此는 長長한 時間에 할 일은 無하고 寂寞을 不禁하여 遊樂으로 歲月을 送하려 하는 者요, 彼는 終日 又は 數日間 繁劇한 事務에 疲困한 心身을 一時의 快活한 消暢으로 恢復하려 함이라. 只今 公園에 散步하는 者는 數時間前 電車나 自動車로 奔走하던 者니, 此奔走가 有하였는지라 此散步에 快味와 意義와 價値가 有하거니와, 彼 淸涼里, 三清洞의 遊客들은 何事로 心身이 疲困하였건데 敢히 消暢을 圖하나요.51)

여기에서 공원의 의미는 근대인의 바쁜 일상과의 관련 속에서 발생한다. 즉, 바쁜 도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축적된 피곤을 풀기 위해 공원을 찾는다. 동시에 이 곳에서의 휴식은 또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기 위한 충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조선에서 공원과 조선인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조선인들에겐 일이 없기 때문에 바쁜 ‘사무’를 중심으로 시간적 공간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조선인에게 공원은 소모적인 유락의 장소일 뿐이다. 이처럼 동경의 공원을 통해 이광수는 분주한 동경 문명인의 휴식과 할 일없는 경성인의 게으름을 비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경은 문명의 공간으로 중심화되고, 경성은 문명의 주변으로 밀려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핀 일본 국민의 공원 또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화 장치로서의 공원에 대한 인식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51) 이광수, 앞의 책(1962), 488쪽.

이러한 자기 주변화의 양상은 저녁 식사 후 방문했던 친구의 방에서 느꼈던 바를 적은 ‘지식욕과 독서열’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마침 친구는 식사 중이었고 이광수는 홀로 친구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때 이광수의 시선이 닿은 곳은 친구의 책상과 책꽂이다. 그는 서가에 꽂힌 책들의 제목을 일일이 점검하고 책들을 꺼내 하나하나 펼쳐본다. 그리고 친구가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를 유심히 살핀다. 친구는 전공 이외에도 교육, 사학, 경제, 농촌, 고문학 등 폭넓은 분야의 책들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 이를 보고 이광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학교 성적은 자신이 뛰어나지만 자신의 독서는 친구에게 견줄 바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광수는 문명화된 족속의 유전적 혈통에서 찾는다.

余는 野生이요, 三,四代 文明한 空氣 中에서 生育한 人이라 彼の 細胞와 血液 에는 이미 文明이 浸潤되었나니 彼の 父는 新文明의 生活을 하던 者요, 彼の 母도 新文明을 理解할 만한 知識을 備한 者라. 彼は 胎中에서 이미 文明의 乳를 吸하였으며, 襁褓에서 文明의 聲을 聽하였고, 家庭의 談話와 學校의 教育과 朋友의 交際와 書籍과 雜誌와 社會의 空氣에서 文明의 知識을 吸收한 人이라. 彼は 年齒는 비록 二十四,五歲나, 其實은 五十餘年 文明의 教育을 受한 者요, 또 社會의 要求가 彼로 하여금 知識을 渴求하게 한 것이다.⁵²⁾

여기에서 일본인 친구는 누대에 걸친 일본의 문명화 속에서 유전적으로 문명인으로 개종된 자이다. 이에 비해 자신은 야생인이다. 그 결과 나이는 24.5세라 할지라도 그는 어른이고 자신은 미숙아이다. 이에 그는 “여는 금야에 숙사에 귀하면 자정되도록 독서하고 매일 여차히 하리라 결심하였노라”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짐했던 대로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이후 잠자리에 드는 그에게 들려오는 것은 “주야불식하는 공장의 기적” 소리이다. 저녁 나절 이광수가 친구의 방에서 본 것과 부단히 돌아가는 공장의 소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이다. 곧 문명인의 모습이며 문명화된 도시의 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문명이라는 하나의 수준에서 동경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각각의 요소들이다.

동경에서의 주변인의 위치와 동경인에 대한 모방적인 태도는 조선과 관련될 때

52) 위의 책, 511쪽.

중심인과 타자 계몽의 태도로 전환된다. 이광수의 「동경잡신」이 전자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면, 후자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현상윤의 「경성소감」이다. 이 글은 동경 체험을 기준으로 경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예이다. ‘다른 나라’라는 표현으로 문명국의 도시와 경성을 비교하면서 경성의 후진성을 비판하지만, 실제 ‘다른 나라’의 도시는 동경이다.⁵³⁾ 비교의 기준으로서의 동경, 사유의 기준으로서의 동경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러한 비교의 이유를 현상윤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우에 여러 가지로 苦言辛句를 忌憚없이 列擧하여 내려온 것은 내가 京城에 對하여 무슨 惡意를 가져 그런 것도 아니오 참으로 京城 現在의 狀況이 그리 함이니 京城의 市民이여 이것을 다만 無責任한 罵倒로만 듯지 말고 一種의 忠告로 생각하면 쓰는 나도 大端한 榮光으로 생각하려하노라.⁵⁴⁾

「경성소감」에서 현상윤은 동경을 기준으로 경성이 하루바삐 문명의 도시가 되길 촉구한다. 여기에서 현상윤은 경성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심 주체의 위치에서 조선인을 계몽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는 경성과 동경을 부단히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거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거리는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 절에서 살핀 경계와 異化에서 발생하는 거리와는 변별된다.

지금까지 몇몇 유학생들의 글을 통해 유학생들이 동경이라는 타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사유 기준을 얻고 이를 통해 경성 또는 조선을 비교 평가하는 예를 살펴본다. 이것은 국제 질서의 변동기에 이들이 일본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그 중심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우에 속한다. 여기에서 유학생들은 조선과 일본의 사이에서 중심이자 주변인 이중적 위치에 서 있었으며, 또 자기각성과 타자 계몽의 이중적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5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이같이 드러난다. “내 東京에 간 後에 第一 부럽고 第一 貴엽게 생각된 것은 저 곳에 있는 靑年들이 自己네 先輩를 가르쳐 아모 先生, 아모 氏라고 불을 췌에 그 先生이라 氏라 불니어지는 사람이 만이 있는 것을 본 일이라. 남의 곳은 저러케 靑年 後生의게 模範되어만한 사람이 其數不可勝算이여늘 지금 우리 곳에는 靑年의게 先生이라 氏라 불너질 사람이 果然 멧사람이나 되느고 하고 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늘하야짐을 스사로 깨닫지 못하겠다. 아모러나 京城에는 先生이 업고 先輩가 업는 것은 事實인듯하다.” 小星, 「京城小感」, 《청춘》, 1917년 11월호, 129쪽.

54) 小星, 위의 글.

3. 감각의 소생과 개별 공간으로서의 동경

「동경잡신」에서는 동경의 도시 풍광에 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1910년대 후반의 이광수에게 동경은 문명의 이념적 대리물이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동경의 외부 풍경을 기술할 심리적 여유가 없다. 즉, 이념에 경도됨으로써 그의 시선에는 동경의 외양이 포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여유 없음은 일본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타적 민족 관념이 형성되고 그에 입각한 시선으로 동경을 바라보았던 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20년대 초반에 이르면 동경에 대한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난 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처음 밭 되던 東京아! 내 너에게 期待함이 만코 배울 바이 만흔 東京아!
 知識에 주리고 文化에 목말은 나로 하야금 將次 가라침이 만코 指導함이 만흔
 東京아! 내가 이제야 처음 너를 밟어보는구나. 初對面の 東京아! 平安하더냐
 하고 나는 속살거렸다.
 東京停車場 앞 넓은 거리에서 나는 한참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앞으로 큰 建築
 物이 줄지어 섰음을 보고 놀랐다. 八九層되는 큰 집은 아마 처음 보는 것이었다.
 寫眞으로는 만히 보았지만은 實地로 치어다 보이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⁵⁵⁾

이 시기에도 조선의 학생들은 여전히 동경에 대한 憧憬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경역에 내린 필자가 “동경정거장 앞 넓은 거리”에서 동경을 “한참 이리저리 둘러”본다는 점이다. 여전히 “큰 건축물”과 “큰 집”에 감탄하긴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통해 동경에 대한 조망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유학생의 변화를 미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경은 문명 또는 민족의 시선에 매개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술된다. 이보다 앞선 1920년의 글은 음식에 대한 논평으로 東渡記의 일부를 채운다.

未久에 下關에 停泊하였는니다. 時間은 忽忽한데 국수집을 차차 단이는 중 밥
 집에서 드러오라고 즐는다. 으모데나 흐고 드러갓다 큰 접시를 열고 보니 기

55) 윤갑용, 「동경에서(2)」, 《동명》, 1923년 5월호, 16쪽.

막힌다. 식기 손가락 한마디만한 무쪽들이다 決코 그것말 안이올시다. 前부터 알던 것이지마는 모도가 다 식삼스러이 感想이 이러난느이다.

넉가 만일 처음 일본인을 보고 民情視察하라 오던 길 갖트면 나는 더 안이 보고 그 곳에서 還歸하였겠느이다. 그러나 價는 一圓五十錢 아! 일개 학생에 나에게는 참 不當하였느이다. 다시 車에 몸을 시러 東京을 바라고 오나이다. 到處에 人家가 끈이지 안이호얏슴으로 事實上 우리보다 豆금 더 發達되었다고 안이홀수는업는이다. 瀬戶內海를 끼고 줄곳 도라올 썩 未嘗不 快味도 感호얏스나 日本 (四: 인용자 삽입) 景 의 (一)되는 宮島에 이르러는 얼마나 深幽한 景이 있는지 나의 어두운 눈으로는 발견치 못호고 혼자말로 우리 金剛山의 一個 石만 가져왔더면 日本 四景의 第一位를 占홀지오. 探勝人도 限量업슬 것이다. 이 다음에는 其 營業이나 (하)여볼까 하엿느이다. 車內는 엇더호가. 變또 보다 食堂이 비나 좀 불(릴)가 하고 가 보니 밥은 十錢式만 더 주면 싸로 얼마던지 먹지마는 飯饌 업시는 안이 드러간다. 飲食 먹고 돈 닐 새마다 授業料를 맞고 日本 飲食을 비왔다 호얏다.⁵⁶⁾

이 글에서 필자는 “식기 손가락 한마디만한 무쪽들”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을 체험한다. 이처럼 음식 체험을 통해 일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유학생들이 막강한 국력의 나라, 앞선 문명의 나라인 일본이 주는 압도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감각을 회복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감각의 소생은 곧 주체적 시선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이는 위 예문 둘째 단락에서 세토나िका이를 지나 미야지마(宮島)에 이르러 “우리 금강산의 일개 石만 가져왔더면 일본 四景의 제일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위의 글은 일본의 자연 풍경에 대해 조선의 것과 일대일로 비교하고, 나아가 조선 풍경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자존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이광수가 「동경에서 경성까지」에서 후지산(富士山)을 보고 “天女가 下界에 내려왔다가 닭의 소리에 놀래어 미처 치마고름도 매지못하고 天上으로 오르라는 모양”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태도는 위 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난과 홍영후 또한 두 번째 동경 유학을 떠날 때 후지산을 바라보며 “大和族이 老幼의 別이 업시 稱讚하고 자랑함도 無理안이라고 그뿐아니라 萬一 그네들노하야곰 萬古의 名山인 金剛의 絶景을

56) 김기수, 「동경여행기 일편을 이궁석 군에게」, 《조선일보》, 1920년 6월 29일~7월 1일자.

接見케하였으면 얼마나 붓그리워할가? 하는 생각도 업지안었다”⁵⁷)라고 적고 있다. 위 예문의 필자와 마찬가지로 난과 또한 후지산을 보며 금강산을 떠올린다.

1920년대 초반의 이러한 변화는 1910년대 후반의 세계정세의 변화와 1919년 3·1운동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10년대 후반 일본 유학생들의 사상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물질 중심의 인생관을 비판하고, 절대적인 국가주의의 전제에 반대하며, 인격적 이상생활의 실현을 추구하는 신이상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다.⁵⁸)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강자에 대한 패배를 숙명으로 보고 저항의지를 약화시키는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⁵⁹)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은 일본을 주체적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객관적 안목을 확보하게 된다.⁶⁰) 눈에 띄는 것은 일단 문명과 야만의 도식을 깨고 동경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오천석은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동경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 때 동경을 “불결한 도화”라고 적고 있다.⁶¹) 동경은 문명의 도시이고 문명은 불결한 야만에 비해 청결하다는 선입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적고 있다.

당시 유학생들의 동경 문화 체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로는 「旅行雜感」과 「東京花信」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일본 군함 ‘日向’ 승선기이며 후자는 벚꽃놀이에 대해 적은 글이다. 전자의 필자 김준연이 학교에서 “海法實地講義”를 위해 실시하는 “일본해군의 최신최대한 군함 日向” 견학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확실하다. “講和條約 後 世界列強은 더욱 軍備擴張에 汲汲해서 唯恐不及하는 狀態에 있다. 이러한 世에 軍事方面 더구나 海事方面에 얼마쯤 知識을 얻어두는 것은 大段히 必要하다”⁶²) 생각에서이다. 견학 후의 소감으로도 군함의 특징과 해군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뿐 이에 대해 과장되게 감격하거나 이를 일본의 위력과 연관 짓지 않

57) 홍영후, 「경성에서 동경까지」, 《서광》, 1920년 7월호, 100쪽.

58) 박찬승, 「1920년대 도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30(2004), 125쪽.

59) 류시현, 「1910~1920년대 일본유학 출신 지식인의 국제정세 및 일본인식」, 『한국사학보』, 7(1999), 293~294쪽.

60) 1920년대 초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글은 成瑄鎬의 「나의 본 日本 서울」(《개벽》, 1921년 6월호, 65~71쪽)이다. 당시 필자가 유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류시현이 위의 논문에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있다.

61) 珊瑚城, 「태평양 건너는 길, 인천에서 동경까지(9)」, 《동아일보》, 1921년 10월 1일자.

62) 김준연, 「여행잡감」, 《학지광》, 1920년 1월호, 53쪽.

는다. 견학의 목적이 뚜렷했던 만큼이나 일본의 함대와 해군을 보는 태도 또한 중심이 잡혀 있다.

김춘강의 「東京花信」⁶³⁾은 동경에 건너간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간 벚꽃놀이에 대해 적고 있다. 그들의 꽃놀이는 “진실로 花에 一興, 酒에 一興, 自己自信에 又 一興”하였고, “酒에 醉, 花에 醉”한 놀이었다. 이처럼 꽃놀이에 흠뻑 빠져 논 것에 대해 적고 있지만, 서두에는 “櫻花가 피나이다. 日人들은 例年에 比하여 今年는 얼마쯤 느졌다고 안달을 썬나니다”라든가 “꽃구경이 例年부다 느졌다고 양달을 썬든 日人들이 今日부터는 五月初旬치고 이러케 싸뜻한 天氣는 稀見이라고 滿面喜色을 띠고 或은 家族, 或은 朋友, 或은 情男情女 三三五五 作隊하여 꽃구경을 나섯나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의 놀이가 일본의 특유한 꽃놀이 체험임을 말해 두고 있다.

김준연이나 김춘강의 글에서 일본 또는 동경의 문화는 더 이상 보편의 문화가 아니다. 그들은 일본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갖고 시찰하거나 한 국가의 특수한 문화로서 받아들인다. 이들에 이르면 일본 또는 동경은 조선과 다른 이질적인 문화 체험의 장소 즉, 개별적인 특수의 공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서는 타문화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이나 일방적인 모방의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IV. 맺음말: 심상지리와 장소 인식을 통해 본 두 개의 동경

예전 강호! 지금 동경! 동양에 수도이고 동양에 제일위인 동경! 우리가 생각 하면 그 곳에만 가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이상대로 모든 것이 나를 환영하며 모든 것이 나를 인도하며 도와줄 줄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 곳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었지요.

그러나 이 곳에서 상상하던 것보다는 그보다 몇 배이나 냉혹하며 무정하더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한번씩 깨달은 바이옵기에 허위없이 적나라하게 하는 말삼이외다. 아...그 곳은 우리 경성보다 몇 배이나 더 문명한 곳이지요...문

63) 김춘강, 「東京花信」, 《조선일보》, 1923년 4월 15일자/18일자.

명한 그곳일수록! 그의 심저에는 인생으로 참아 못할 별다른 연극이 생기이는 동시에 잘못된 희비극이 하로 뗏군데식 또한 뗏번식이 생기이지요. 이것은 무엇으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책에는 법률도 소용이 없으며 경찰도 어느 정도와 어느 범위까지맞게는 소용이 없더이다.⁶⁴⁾

동경에만 가면 모든 이상이 실현될 줄 알았던 애초의 생각과 달리 실제 가서 본 동경은 “냉혹”하고 “무정”하더라는 내용의 글이다. 1920년대 초반의 글로서, 이 글은 동경의 도시 문명이 갖는 폐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동경이 있다. 상상 속의 동경과 현실에서 부딪힌 동경이 그 둘이다.

지금까지 살핀 2장과 3장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두 개의 동경을 볼 수 있다. 2장의 ‘東渡의 꿈’은 조선에서 만들어진 동경에 대한 상상 즉, 심상지리를 토대로 한다. 심상지리란 주체와 동경이 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유학과 입신출세의 꿈은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동경의 심상지리에 근거한 것이며 타자에 의해 매개된 욕망이다. 조선 유학생들에게 동경의 심상지리에는 일차적으로는 자신들의 욕망과 상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처럼 심상지리가 만들어진 꿈이라면 장소(Topos)는 타자와 부딪히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아간다는 의미를 지니는 삶의 터전이다. 3장 ‘동경의 장소적 의미와 주체’는 이런 관점에서 유학생들이 보여준 장소로서의 동경 인식을 살핀 것이다. 이들에게 동경의 의미는 동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일차적인 존립 근거인 조선이라는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 터전으로서의 장소는 심상지리의 일방적인 상상과는 달리 주체와 공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조선과 동경 또는 일본이라는 두 개의 장소에서 생성되는 그들의 특수한 위치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국민 통합 공간 속에서 비국민으로 존재하거나, 문명의 공간 동경을 중심에 놓고 조선을 평가하는 그들의 비교 사유 등은 이러한 유학생들의 위치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열등감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본과 동경에 대한 관념적 매물은 1920년대 초반에 이르러 조금씩 깨어지는 징조가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에

64) 秋谷, 「동경계신 『트호』형님께, 《매일신보》, 1922년 2월 15일자.

대한 상호 인식이 식민지/피식민지, 문명/야만의 단순 비교의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물론 이상, 임화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30년대에 들어서도 일본 憧憬의 정서는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미미하나마 식민 제국의 공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발언했던 피식민자의 목소리를 가려내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각의 소생과 개체 공간으로서의 동경’에 대한 논의는 주변인으로서의 피식민자의 시선과 발언 방식을 밝히는 단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에 이르면 동경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다. 염상섭의 「6년 후의 동경에 와서」⁶⁵⁾라든가 1930년대 지식인들의 동경의 문화공간 체험기들은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1930년대에 이르면 경성은 동경과 별반 차이가 없는 도시로 변모한다. “경성의 상품이 전부 동경, 대판, 신호에서 오는 것이오 경성에 있는 온갖 서적이 다 동경에서 오는 것이며 영화, 의복지, 유행 등 모든 것이 동경에서 오는 것이니 동경이 경성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⁶⁶⁾라는 박영희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소비 도시로 변모한 동경과 맺는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다. 여기에서 유학생 또는 근대의 지식인들은 근대 동경에 펼쳐진 소비문화에 노출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개벽》; 《대한학회월보》; 《동명》; 《삼천리》; 《서광》; 《신민》; 《청춘》; 《태극학보》; 《학지광》; 《현대평론》;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 2004, 113~137쪽.

김백영, 「왕조 수도로부터 식민도시로: 경성과 도쿄의 시구 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학보』 112, 2003, 76~112쪽.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서울: 문음사, 2001.

65) 염상섭, 「6년 후의 동경에 와서」, 《신민》, 1926년 5월호.

66) 박영희, 앞의 글(1938), 135쪽.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 서울: 한길사, 1986.
-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 『우리말글』 32, 2004, 241~272쪽.
- 노영희, 「이상문학과 동경」. 『비교문학』 16, 1991, 120~139쪽.
- 류시현, 「1910~1920년대 일본유학 출신 지식인의 국제정세 및 일본인식」. 『한국사학보』 7, 1999, 281~309쪽.
- 박찬승, 「1910년대 독일유학과 유학생활동」. 『호서사학』 24, 2003, 113~139쪽.
- 박찬승, 「1920년대 독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30, 2004, 99~148쪽.
- 박현수, 「김소월 시의 보편성과 토포스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7, 1999, 49~178쪽.
- 사노마사토, 「이상의 동경 체험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7, 1999, 185~201쪽.
- 上垣外憲一(저)/김성환(역), 『일본유학과 혁명운동』. 서울: 진흥문화사, 1983.
- 서연호(외), 『한국 근대 지식인의 민족적 자아형성』. 서울: 소화, 2004.
- 소영현,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교양론·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 18, 2006, 195~227쪽.
- 아리스토텔레스(저)/김재홍(역), 『변증론』. 서울: 까치글방, 1998.
- 오구마 에이지(저)/한철호(역), 『일본이라는 나라?』. 서울: 책과함께, 2006.
- 이광수, 『이광수전집』. 서울: 삼중당, 1962.
- 장인성, 「토포스와 아이덴티티: 개국기 한일 지식인의 국제정치적 사유」. 『국제정치논총』 37, 1998, 3~50쪽.
- 최남선, 『시문독본』. 서울: 신문관, 1922.
- 황호덕, 「경성지리지, 이중언어의 장소론」. 『대동문화연구』 51, 2005, 107~141쪽.
- 황호덕, 「로쿠메이칸(鹿鳴館)의 유학자: 박대양의 『동사만록』과 메이지 일본의 표상 내셔널리즘」. 『상허학보』 11, 2003, 11~44쪽.
- 황호덕, 「타자로의 향해들, 「사이」에서 창안된 네이션: 개항기의 견문록과 간문화적 자기 재현」. 『한국사상과 문화』 34, 2006, 105~145쪽.
- 박기환, 「近代日韓文化交流史研究: 韓國人の日本留學」. 大阪大學 박사논문, 1998.
- 小野良平, 『公園の誕生』. 東京: 吉川弘文館, 2003.
- 竹内 洋, 『立身出世主義: 近代日本のロマンと慾望』. 京都: 世界思想社, 2005.

국 문 요약

본 논문에서는 1905년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의 동경 유학생들의 기행문 및 동경 체험 기록을 통해 동경의 장소적 의미를 살폈다. 이를 위해 유학생들의 구체적인 문화 체험을 바탕으로 조선과 동경, 동경과 유학생의 관계를 살펴 장소로서의 동경이 갖는 역동적인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모국의 문화 정치적 자력이 흐르는 동경과 피식민지 출신 유학생 사이의 포섭과 저항 또는 동화와 異化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분법적 틀로부터 벗어나 이들이 주체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양상까지도 함께 살필 수 있었다. 먼저 조선의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향하면서 품었던 희망, 괴로움과 좌절 등을 통해 이들이 조선에서 품었던 동경에 대한 상상 즉 동경의 심상지리를 살폈다. 이를 통해 東渡의 曷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유학생들이 일본의 국민 통합 전략의 공간에서 어떻게 비국민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또 동일한 공간임에도 어떻게 문명의 철저한 모방자로 존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민족과 문명만을 읽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식은 1920년대 초반에 이르면 깨어진다. 이 시기에 이르면 유학생들은 일본으로부터의 압도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을 회복한다. 감각의 소생은 곧 주체적 시선의 회복으로 연결되었다. 그렇기에 이들에겐 타문화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이나 일방적인 모방의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국제 질서의 변동기에 유학생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인식했던 일본-동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식민지/피식민지, 문명/야만의 단순 비교 논리를 넘어 이들이 동경이라는 장소와 어떻게 복합적인 관계를 맺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 투고일 : 2007. 9. 27.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동경 유학생(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東渡(Crossing of East), 동경(Toyko), 심상지리(Imaginary Topography), 장소(Topos), 입신출세주의(a Principle of Advancement), 문화장치(Cultural Apparatus).